
웹 분야(HTML5) 표준화 활동

2014.01.02.

□ 배경

- HTML5는 차세대 웹문서 표준으로서,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만 표시하던 HTML (Hyper Text Markup Language)이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까지 표현·제공하도록 진화한 “웹 프로그래밍 언어”
 - 오디오·비디오·그래픽 처리, 위치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, 웹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향상
- 국제 웹 표준 개발 조직인 W3C를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모질라, 구글, 오페라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 벤더가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음
 - 2004년 WHATWG의 새로운 표준화 제안으로 시작
 - ※ WHATWG(Web Hypertext Application Technology Working Group) : 벤더와 개발자 커뮤니티가 주축이 된 그룹

□ 주요내용

- `11년 7월, ABI Research에서 `16년도 HTML5를 지원하는 모바일 단말의 연간 판매량을 21억대로 추정한 바 있으며, 이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HTML5 기능은 향후 2~3년 이내에 대중화 될 전망
- HTML5는 2014년 경 최종 표준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나, 현재, 웹 브라우저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은 오디오·비디오·그래픽 등 표준화가 많이 진행된 기능을 중심으로, 특히 모바일 분야에서 HTML5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
 - 구글은 스마트폰을 위한 플랫폼인 안드로이드, 웹 브라우저인 크롬, G-Mail, Youtube 등을 HTML5로 전환하고 있음
 - 마이크로소프트는 타 브라우저에 비해 HTML5 수용도는 낮으나, `11년 출시된 Internet Explorer 9 버전부터 HTML5를 지원하고 이를 개선 중
 - 애플은 HTML5를 적극 지원하여, 자사 홈페이지에 HTML5 기능을 적용하여

웹 브라우저인 Safari를 통해 HTML5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

- 국내 산업계에서도 포털, 인터넷 서비스 업체 및 통신사 등에서 HTML5 표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,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
 - 삼성전자와 리눅스 재단 등이 HTML5 기반의 웹 OS TIZEN 개발 중
- 국내에서는 W3C HTML5 대한민국 관심그룹(HTML5 KIG: HTML5 Korean Interest Group)을 발족하여 관련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HTML5 및 관련 표준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표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, 대한민국의 특별한 사례(Use Case)를 정리
- 국내 표준화 활동으로는 TTA에서 기반소프트웨어 기술위원회(TC6) 산하 웹 프로젝트그룹(PG605)에서 HTML5를 비롯한 WoT(Web of Things), 웹 접근성 등 웹 관련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

□ 향후전망

- W3C는 현재 작업 중인 HTML5 표준을 2014년 4분기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, 후속 표준인 HTML5.1 표준인 2016년 4분기에 완료할 예정임
- TTA의 웹 프로젝트그룹에서는 `13년도 HTML5 표준 중 산업계에서 빈번히 참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표준 4건에 대해 잠정표준으로 제정 하였으며, `14년도에 W3C에서 HTML5 표준 채택이 완료되는 대로 TTA 단체표준으로의 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

※ `13년 채택된 HTML5 관련 4건의 잠정표준

TTAI.OT-10.0358 웹소켓 API

TTAI.OT-10.0356 CSS 선택터 레벨 3

TTAI.OT-10.0356 CSS 선택터 레벨 3

TTAI.OT-10.0355 CSS3 미디어 쿼리

▷ 본 자료의 게시처 : TTA 홈페이지 > 자료마당 > TTA간행물 > 해외표준화기구동향